

계층별 대안주거와 협동조합주택의 가능성

청년주거의 대안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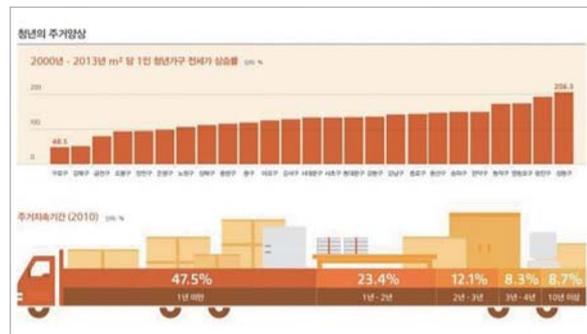
김란수
(하우징콤플렉스협동조합 연구소장)

1. 들어가며

서울시 주택의 40% 가까이 점유하던 무허가정착지들이 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대부분 해체되면서 한국 대도시에서 주거빈곤이 사라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국제연합(UN)에서 작성한 「도시 인구, 발전, 환경 2007」에 의하면, 2005년 한국의 슬럼가구 거주 인구는 전체 도시인구의 37%나 차지하고 있다(UN, 2007). 우리나라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1995년 589만 가구(46.3%)에 비하여 2010년 203만 가구(11.8%)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최은영 외, 2012), 여전히 많은 가구가 주거빈곤에 놓여있다. 현재 무허가정착지로 대표되는 빈민거주지는 사라졌으나, 고시원, 쪽방, 반지하방 및 옥탑방 등 새로운 유형의 빈민거주지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신빈민 거주지에는 주로 청년 및 1~2인 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1인 가구 청년들의 36.3%가 열악한 주거 빈곤상태에 놓여있다. 이들은 주로 고시원, 지하방 및 옥탑방 등에 거주하게 되어 주거환경도 취약하며, 주거비 비중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¹⁾

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주거양상을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청년가구의 전세가는 100%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한 비싼 집값으로 청년들이 한곳에 오래 정착하지 못하



자료 : 슬로워크, 2013, 청년인포그래픽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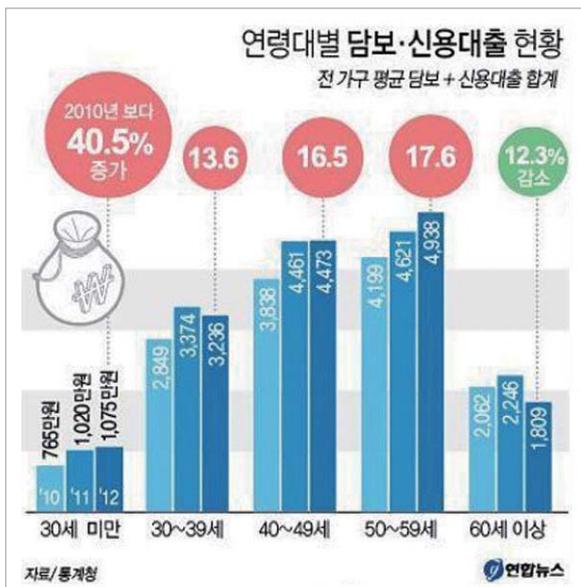
▲ [그림 1] 서울시 청년의 주거양상

고 있다. 주거 지속기간에서도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하는 청년이 47.5%나 된다.

일반적으로 20대의 평균 주거임대 보증금²⁾은 1,000만원에 월세 48만원으로 생활비의 절반을 사용하고 있으나(민달팽이유니온, 2013), 현실적으로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는 집은 평균가격이 아닌 훨씬 더 비싼 집으로 인식되고 있다. 대학생 중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해 신체감동 통학시간 72분을 초과한 통학생들은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지만(민달팽이유니온, 2013), 서울소재 대학 기숙사의 실질 수용률은 10% 미만이며,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도 3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청년들의 주거문제는 심각한 수준이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청년 주거복지 정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1) 민달팽이유니온(2013)에 의하면 주거취약환경에 놓여 있는 대학생은 45%로 일반가구의 11.5%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2) 임대보증금의 임대료 부담을 위한 연령대별 담보 신용대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20대의 보증금 대출은 갑절로 늘었으며, 30대도 28.7%가 급증하는 등 전월세난의 충격이 큰 것으로 보여 진다(민달팽이유니온, 2013).

계층별 대안주거와 협동조합주택의 가능성



▲ [그림 2] 연령대별 담보·신용대출현황(민달팽이유니온, 2013)

그러나 최근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인식하고 주거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하여 대안적인 주거문화를 모색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 그간 주거복지 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공공이 주도하는 하향식 접근(top-down)방식에서 벗어나 주거복지의 대상인 입주자와 공공이 대등한 관계 속에서 혹은 더 나아가 입주자가 주체가 되어 스스로 주거문제를 개선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상향식 접근(bottom-up)방식에서의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청년들이 자신의 주거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다. 여기에는 공공이 주도하는 공공임대형 주택협동조합 주택과 사회적 기업을 통하여 청년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하는 '우주' 및 직접 자신의 주거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주

거공동체인 '우리동네사람들'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살펴봄으로서 청년주거 대안모델로서 사회적 경제³⁾ 영역의 실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과 주택협동조합을 통한 청년 주거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청년주거와 주택협동조합

전통적으로 주택협동조합은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저렴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국제협동조합연맹(ICA, International Cooperatives Association)은 주택협동조합을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면서 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한 법적 조직체(legal association)'로 정의하면서 개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단체와 구별되고 협동조합의 7가지 원칙⁴⁾을 따른다고 하고 있다.

주택협동조합은 Communal Housing⁵⁾, Co-Housing⁶⁾ 등과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주택의 소유 및 관리규정에 대한 함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주택협동조합은 재정과 건축물의 유지관리가 공동으로 이루어지며, 새로운 입주자는 협동조합에 가입하여 주택협동조합 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도 주택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의사에 따라 주택의 일부 또는 전체를 관리 운영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주택협동조합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들은 민주적이며, 법과 정책적 틀 속에서 집행하게 된다. 즉, 주택협동조합은 비영리 법인체로서 조합원의 자발적이고 민주적 경영을 통해 주거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충족하는 것이다.

3)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는 자본보다는 사람을 우위에 두는 경제개념으로 사회적 가치실현을 우선으로 한다. 공동체의 보편적 이익 실현, 민주적 의사결정, 노동 중심의 수익배분, 사회 및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등의 가치를 추구하고, 자주적·자립적 경제행위를 통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 이를 위하여 주체들의 협동과 연대, 신뢰가 필수적이다.

4) 주택협동조합의 7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②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③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④서비스에 대한 약속, ⑤자율과 독립, ⑥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 ⑦협동조합간의 협동이다.

5) Communal Housing은 Shared Housing, Collective Housing과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으며, 공동식사, 취사 및 공동생활공간을 지닌 공동생활주택이다. 주로 임대주택에서 협동조합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학생주택협동조합이 여기에 해당된다.

6) Co-Housing은 거주자가 주택을 설계하고 건축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주택개발 유형으로 공동취사 및 공동생활공간을 제공하여 사회적 상호작용과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주거유형이다. 일반적으로 공동공간은 공동주택 구성원들의 소유이며, 개별 주택은 개인 소유의 형태를 지닌다. 대표적으로 마포구 성미산 마을의 소행주 주택이 여기에 해당된다.

계층별 대안주거와 협동조합주택의 가능성

주택협동조합은 나라마다 처한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분명하게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 ① 법적 근거를 지닌 법인체의 형식을 띠고 있다.
- ② 조합원들은 지불 출자금에 관계없이 1인 1투표권을 지닌다.
- ③ 조합자본에 대한 동일한 출자와 정해진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도록 한다.
- ④ 사업 활동에 의해 생긴 이윤은 조합전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도록 한다.
- ⑤ 조합 구성 및 탈퇴의 자발성을 띤다.
- ⑥ 저렴한 비용으로 양호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영리추구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공권력에 의해 조직된 단체가 아니다.

주택협동조합은 저렴한 주거비와 다양한 계층에 맞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주택협동조합은 근본적으로 상호부조 및 자조의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자신의 주택문제를 정부나 공공에 의지하는 것이 한계가 있음을 절감하고, 비슷한 주택문제를 지닌 동일한 목적의 사람들이 모여 공동으로 주거안정을 해결하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이런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주택협동조합은 매우 고도화된 민주주의적 운영방식과 조합원의 협조를 전제로 하고 있다.

조합원의 협조는 주거공동체 내부에 형성되는 커뮤니티가 발달되면 충분히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커뮤니티가 발달된 공동생활주택들은 생활과 주거에 대한 명확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거주자들은 생활방식과 주택소유에 대한 기존 개념을 채택하지 않으며, 개인의 자립과 자유가 전제되는 생활의 일부를 공유하고 참여·협력하는 주거방식을 취하게 된다.

이와 함께 거주자들이 주체적으로 주거문화를 만들고 가꾸어 나가는 새로운 유형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된다. 특히 청년들은 기존 주거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의지를 보이면서 삶의 다른 측면들을 실천적으로 드러낸다. 즉, 공동주거를 통한 공동체의 회복뿐 아니라 환경오염, 낭비에 대한 순환적인 생태적 삶의 복원 등 삶의 다른 방식을 추

구하면서 대안적 형태의 삶의 모습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주택협동조합을 통한 주택의 공급은 청년주거의 가치, 고유성과 미래가치를 공유하는 것이며, 공유경제를 실천하는 장으로 기능한다. 특히, 청년주택협동조합은 청년들이 신빈민거주지를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II. 청년주거 사례

(1) 만리동 예술인협동조합형 공공임대주택⁷⁾

만리동 예술인협동조합형 공공임대주택은 서울 중구 만리동 일대에 전용면적 60㎡이하의 공공임대주택 29가구를 SH공사가 공급하는 것으로 문화·예술분야에서 종사하는 무주택 가구주가 입주대상이다. 여기에는 1인 가구와 임대료 및 관리비를 절감하기 위해 거실과 식당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셰어하우스도 도입하고 있으며, 셰어하우스에는 청년들이 주로 거주하게 된다.

공공임대주택은 예술인 단체가 주택단지의 설계 및 관리 운영에 참여하여 주민자치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주거공동체 형성을 유도하도록 한다. 예술인의 협동조합 구성과 운영을 통하여 자율적이고 상호호혜적인 주거공동체를 형성하여 예술인 주택으로서 지역사회를 위한 문화예술 활동의 거점이 되도록 함이 목적이다.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는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로 적용하며, 입주자가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2년마다 재계약을 가능하게 하여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주변 전세 시세의 80%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어 도시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 1] 만리동 예술인협동조합형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단위:만원)

전용면적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가구타입
24㎡	4,773	1.5	스튜디오형 (1인 주거)
51㎡	10,142	2.4	가족형 및 셰어하우스
59㎡	11,733	3	

자료 : 서울시 예술인협동조합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2013.8.9)

7) 만리동 예술인협동조합형 공공임대주택은 현재 입주자 선정은 완료하고, 주택 설계 중에 있다.

계층별 대안주거와 협동조합주택의 가능성

(2) 우주⁸⁾

‘우주(woozoo)’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에게 저렴한 월세로 주택을 공급하는 프로젝트옥(OK)⁹⁾이라는 사회적 기업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우주는 낚아서 세를 놓기 어려운 주택 전체를 임대하여 리모델링한 뒤 임차인들에게 제공한다. 임차인들은 공고를 통하여 모집되며, 면접절차를 거쳐서 입주자로 선정된다.

거주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며, 계약 종료 1달 전에 입주자들의 상호 만족도조사와 운영담당자의 개인평가에 따라 재계약을 하고 있다.

우주에서 제공하는 주택은 셰어하우스(shared housing)로 여러 명이 개별 방에서 생활하면서 화장실, 거실 및 주방을 공유하는 형태이다.

주택은 2012년 12월 한옥을 개조하여 공급한 1호점을 시작으로 현재 7호점까지 공급되어 총 70명의 입주자가 거주하고 있다. 주택은 남산, 미아삼거리, 종로, 홍대 등 서울시 내 곳곳에 위치해 있으며, 주거비는 월세 2개월분의 보증금과 매월 33만원 ~ 45만원 수준의 월세로 되어있다. 여기에는 관리비, 가스비, 인터넷 요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가구들

은 불박이로 설치되어 있고 전자제품 및 주방용품도 구비되어 있어 일반적 월세집에 비하여 상당히 저렴한 편이다.

우주는 단순히 주택만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입주자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입주자들도 창업가 또는 미술가를 꿈꾸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및 여행이나 요리 등 공통의 화제를 중심으로 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있다. 특히 우주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들에게는 멘토가 될 수 있는 이들을 섭외하여 강연 등을 기획하기도 하며, 지역 저소득층 가정의 과외나 이삿짐을 날라주는 등의 거주자들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3) 우리동네사람들(우동사)¹⁰⁾

우동사는 인천시 서구 검암동에 위치해 있으며, 공동주택(다세대) 2채의 주택에 청년들 12명¹¹⁾이 2010년 8월부터 함께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불교대학에서 만난 청년들로서 귀촌을 원하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공동체생활을해보자는 취지로 시작하였으며, 법륜스님의 수행공동체인 정토회¹²⁾에서 만난 청년들이 2009년 마을만들기 공부를

[표 2] 우주의 주택공급 현황

구분	위치	입주자수	방타입	입주자성별	임대료	비고
1호점	종로구 전농동	9명	3인1실(3호)	남성	35만원	창업가를 위한 집
2호점	중구 회현동	1명	1인1실(1호)	남성	N/A	미술가를 위한 집
3호점	종로구 돈의동	12명	2인1실(6호)	남녀 혼합	45/49만원	사회초년생을 위한 집
4호점	종로구 옥인동	6명	2인1실(2호) 1인1실(2호)	남성	37.5/43만원	slow life를 꿈꾸는 사람들의 집
5호점	마포구 서교동	12명	2인1실(6호)	여성	42/43.5/45만원	creative life를 위한 집
6호점	강북구 미아동	21명	2인1실(10호) 1인1실(1호)	남녀 혼합	33~42만원	여행을 꿈꾸는 사람들의 집
7호점	동대문구 전농동	9명	2인1실(4호) 1인1실(1호)	여성	37/41/45만원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집

자료 : 우주 홈페이지(<http://www.woozoo.kr>)

8) ‘우주’의 주요 내용은 제 3회 주거복지 컨퍼런스내용 및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woozoo.kr>)를 참고로 작성하였다.

9) 프로젝트옥은 2012년 10월에 설립되었으며, 공동창업자 5명은 사회적 기업경험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청년들이 창업한 기업이다.

10) 우동사공동체 입주자와 인터뷰 내용을 참고로 작성하였다.

11) 거주하는 청년들은 32~36세가 주를 이루며, 20세 1명 포함되어 있다. 현재 주택 1채를 추가로 구매(전세)하여 6명이 거주할 예정이다.

12) 정토회는 최근 법륜스님 중심의 불교수행모임으로 수련뿐 아니라 국제구호, 환경, 복지 활동 등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가하고 있다.

계층별 대안주거와 협동조합주택의 가능성



▲ [그림 3] 우주 4호 주택

하게 되면서 합류하게 되었다. 이들은 야마기시즘¹³⁾을 실현하기 위하여 일본 시스카현의 ‘애즈윈커뮤니티’와 자매결연을 맺는 등 다양한 실험들을 진행하고 있다.

공동체에 함께 살기 위해 출자금으로 1,000만원을 출자하게 되며, 이는 주택의 보증금에 해당한다. 주거 관리비용으로 매월 10~20만원을 지불하고 있으며, 각자 수입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지불하고 있다. 같이 살고 싶은 입주자가 출자금을 일시불로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함께 거주하면서 매달 일정금액씩 분할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주택의 1채는 매입을 하였으며, 나머지는 전세이다. 매입한 1채의 주택도 처음에는 전세로 거주를 시작하였으나, 많은 입주자가 거주한다는 점을 꺼려하는 집주인을 설득하여 구매하게 되었다. 주택의 구입은 기존 전세금과 대출이 가능한 신혼부부 및 직장인의 대출로 이루어졌으며, 주택의 소유주는 공동체가 아닌 개인 명의로 되어 있다.

각 주택의 입주자들은 부부 1쌍과 남녀 각 2인씩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동체 활동으로 텃밭오공¹⁴⁾과 협동조합인 카페오공¹⁵⁾을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음식물

쓰레기 퇴비 활용 등 다양한 친환경 실험들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우동사는 서울시에 주택임대업을 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다.

입주자들은 1주일에 1회 매주 월요일 저녁은 공동식사를 하고 있으며, 매주 목요일은 정토회 법회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17개가 있으며, 보통 2~3개의 위원회에 중복하여 가입되어 있다. 위원회에 리더는 없으며, 위원회의 가입과 탈퇴는 외부의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자발성은 주택을 유지·관리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따로 규정되어 있는 규약이나 규칙 없이 ‘하고 싶은 사람이 한다’는 것이다.

입주자들 간의 소통은 오프라인 식사모임과 온라인 및 SNS를 통하여 의견을 나누며, 갈등도 이를 통하여 해결하고 있다. 갈등은 개인별 문제이면서도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서 현재까지는 큰 갈등은 없었다.

공동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부정기적으로 1년에 한 두 번의 워크숍으로 진행하고 있다. 우동사는 정토회를 통한 법회를 매주 진행하면서 기본적인 공동체에 대한 교육이 되어 있는 입주자들로 구성되어 있어 공동체성 향상을

13) 야마기시즘은 1953년 일본의 야마기시 미요조씨가 제창한 공동체 운동으로 ‘자연과 인위, 즉 천(天) 지(地) 인(人)의 조화를 도모하여, 풍부한 물자와 건강, 친애의 정으로 가득차 있는 안정되고 쾌적한 사회를 인류에게 가져오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다. 즉, 인간을 자연과 대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은 일체로서 인간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로 인간은 혼자만으로 존재할 수 없는 일체 속의 일원으로서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들이 사회를 만들어가는 원리는 무소유, 공용, 공활생활로서 ‘돈이 필요 없는 사이좋은 마을’을 추구한다(<http://www.yamagishism.co.kr>).

14) 텃밭오공은 검암지역에 약 100명의 밭과 강화도에 약 500명의 눈을 경작 중이다. 농사를 지은 수확물은 자체적인 식재료로 활용하고 남은 것은 입주자들에게 분배되었다. 특히, 올해 첫 벼농사 수확물을 이웃들과 나누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을 경험하였다.

15) 카페오공은 50명의 출자자로 이루어진 협동조합형 카페로서 서초동과 불광동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내에 있다. 카페오공은 독서모임, 목공수업, 스페인어, 천연비누 만들기 등과 같은 재능 나눔 프로그램과 대안화폐 등을 실험하고 있다.

계층별 대안주거와 협동조합주택의 가능성



▲ [그림 4] 우리동네사람들 공동체 주택

위한 특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우동사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은 현재 생활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 이는 거주자들끼리 항상 소통할 수 있고, 서로에 대하여 진심으로 응원하고 격려해주는 친구가 옆에 있는 것으로서, 특히 젊은이들이 경제적·심리적 불안정을 서로 돕고 의지할 수 있는 공동체가 주거도 공유하기 때문에 셰어하우스 생활에 만족함을 느끼는 것이다. 즉, 이들은 단지 물리적 거리가 아닌 관심사와 취향, 가치관을 공유하고 서로에 대하여 이해하고 공유를 실천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IV. 나가며

높은 주거비 감당을 위해 청년들을 중심으로 지역적으로 행해지는 셰어하우스는 쾌적한 환경과 다소 소외되기 쉬운 자아를 공동체의 하나로 묶어 줄 수 있는 편리성과 저렴한 주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셰어하우스를 중심으로 한 주거공동체는 사물, 관계, 공간을 공유하고 공용·공동화하여 이를 운영하는데 협력함으로써 서로 신뢰하며 돕는 정신을 길러내고 있다.

소비경제와 사회적 서비스에 의존하는 개인화된 일상 생활이 비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의 관계를 소외시켜 인간으로서의 생활력이나 이전 세대가 구축해온 풍요로운 주거문화를 잃어버리게 하였기 때문에 청년들은 셰어하우스라는 공동생활을 통하여 협력하는 삶을 추구하게 된다.

셰어하우스는 협력을 통해 길러진 개별 거주커뮤니티가 지속가능한 마을을 위한 기초로써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우주'의 입주자들이 지역주민의 이사를 돕는다거나 '우동사' 입주자들이 수확물을 나누는 등과 같이 주거중심의 공동체가 마을로 그 영역을 확장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공동체 중심의 주택은 모든 입주자들에게는 열린 집단주거형태이지만, 서로 간에 협력해야하기 때문에 일반적 주택공급모델로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적인 사회적 거주운동으로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회적 거주운동으로서 공동체 주택은 주택, 복지뿐 아니라 교육, 문화적인 측면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가치를 인정받게 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우주'와 '우동사'와 같은 청년주거의 성공적 정착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주거의 심각성에 대한 정부적 차원에서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또한 청년들의 거주특성과 소득에 맞는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공공의 선도적 역할과 함께 사회 구성원이 비전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거운동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청년들의 대안주택으로서 주택협동조합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게 되면, 청년의 주거안정과 소외된 자아를 회복하는데 기여하여 청년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기대할 수 있다.

계층별 대안주거와 협동조합주택의 가능성



참고문헌

- 1) 김란수(2013), '한국형 주택협동조합의 사회·경제적 실행가능성과 제도 개선방안 연구',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 2) 민달팽이유니온(2013), '서울 청년정책제안 청년주거정책'
- 3) 변창흠·김란수(2011), '재정비사업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대안적 모델 검토: 협동조합주택을 중심으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4) 서울시 예술인협동조합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2013.8.9.)
- 5) 슬로워크(2013), '청년, 어떻게 살고 있나?', 청년인포그래픽스
- 6) 주거복지 컨퍼런스 조직위원회(2013), '제3회 주거복지 컨퍼런스'
- 7) 최은영·김용창·권순필(2012), '2011년 신기준에 의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시·공간적 변화(1995~2010년)', 부동산학연구 18(4), 171-195
- 8) United Nations, 2008, Urban Population, Development and the Environment 2007.
- 9) 야마기시즘 <http://www.yamagishism.co.kr>
- 10) 우주 <http://www.woozoo.kr>

